

‘섬 새우젓 축제’ 신안젓갈타운서 개최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다양한 행사 펼쳐져
“김장철 앞두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신안군은 신안 새우젓의 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제1의 젓새우 생산지인 지도읍

신안젓갈타운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섬 새우젓 축제’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섬 새우젓 축제에서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전남예총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수산물 갑작경매행사 등이 펼쳐진다.

또 부대행사로 지역 농·수산물(왕새우·젓갈·김·천일염·꾸지뽕 등) 판매와 새우젓을 활용한 요리경합, 전시·시식행사 등이 열려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신안 새우젓은 신안의 청정해역에서 잡은 첫

새우와 게르마늄이 풍부한 천일염으로 담가 육질이 단단하고 씹을수록 감칠맛이 뛰어나다.

면역력 강화와 뇌 세포 성장 및 인지능력 향상, 염증질환 개선과 특히 소화기능 및 간 기능 개선, 항암효과, 다이어트 등에도 좋은 음식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축제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김장철을 앞두고 품질 좋은 새우젓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명실 상부한 젓갈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되찾고 천일염과 함께 지역소득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국내 최대 새우젓 생산지로 전국 대비 75% 이상인 연간 1만1756t을 생산하여 약 73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무안군 현경면, 한가위 황토고구마 노래자랑 ‘성료’

무안군 현경면(면장 김형배)은 최근 현경중학교 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제6회 한가위 황토고구마 노래자랑’을 성대하게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경면 청년회(회장 김태경)가 주최하고 무안군, 현경면이장협의회, 현경면변영회, 현경면방방대대, 현경면부녀회 등이 공동 후원한 이번 노래자랑은 면민을 화합시키고, 귀성객들과 지역주민들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됐다.

이날 행사에는 각급 기관사회 단체장과 귀성객, 면민 등 500여명이 특설 무대를 가득 메웠으며 15명의 참가자들이 노래를 열창할 때마다 관객들은 뜨거운 함성과 갈채를 보냈다.

특히 초대가수 3팀(박혜진, 로미나, 레이디티)과 잭팟크루의 비보잉, 디제잉쇼로 흥을 배

기시켰으며, 대미를 장식하는 화려한 불꽃쇼로 축제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와 더불어 각급 기관사회단체에서 후원한 쌀, 고구마, 양파즙 등 지역특산품과 예초기, 분무기, 자전거, 세탁기, 냉장고, TV 등 다양한 물품을 노래자랑 상품 및 행운권 추첨선물로 준비해 관객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김태경 현경면 청년회장은 “한가위 황토고구마 노래자랑이 면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성기기자

영광군, 경로당 건강 플러스 담배연기 제로화 사업 인기

10월 31일까지 2개소 경로당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 노력”

영광군은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 읍면 2개소 경로당을 선정하여 주 5회 건강 플러스 담배연기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 플러스 담배연기 제로화 사업은 “코로나19”고위험군에 흡연자가 속하여 흡연 및 호흡기 질환에 대한 군민의 관심 증가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경로당별 주 3회 진행하며,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밴드를 활용한 체조동작 따라기, 건강박수, 천연재료를 활용한 천연비누 공예 체험활동,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흥겨운 노래교실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영광, 간접흡연 제로화 추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교육, 공공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금연클리

닉을 ☎350-5971)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2023~2026년 분야별 추진전략·세부사업 등 논의

영암군은 지난 9월 16일 영암군노인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기 영암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열고, 군 복지정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보고회는 우승희 영암군수를 비롯해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 위원과 TF팀 위

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년)의 목표, 전략, 분야별 추진사업과 세부사항, 성과지표 등을 공유하여 복지정책의 변화와 복지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세부추진 전략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앞



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보장대표회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9월부터 보훈수당 인상 지급

함평군이 국가유공자 복리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보훈수당을 증액 지급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과 한국전쟁·월남전쟁 등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보훈수당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함평=김광훈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